

사회

유치인 화상면회 '무용지물'

광주 경찰서, 프로그램 노후·홍보 안 돼 ... 울 이용 건수 '0'

'피의자 인권보호·이용자 편리' 취지 무색

광주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유치인 화상면회 서비스'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찰서 유치장(동부서, 서부서, 북부서) 유치인 화상면회 이용건수는 지난 2008년 24건에서 2009년 3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이날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유치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화상 카메라를 유치장 컴퓨터에 설치한 뒤, 유치인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유치인 화상면회 서비스가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메시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유치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상면회 서비스는 '넷미팅(Net-Meeting)'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잘 알려진 메시지 프로그램과 달리 현재는 사용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보가 이날 유치인 화상면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결과 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에게 낮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과 함께 홍보 부족도 화상면회 서비스 이용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상당수의 민원인이 화상면회 서비스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것

이 때문에 화상면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지 프로그램 이용과 동시에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박모(46·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화상면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본다"면서 "평범한 시민들은 화상면회에 대해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도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화상면회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며 "굳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까지 유치인을 면회하려고 하는 민원인이 적은 탓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적십자 재난구호 훈련 배포될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16일 오전 광주 북구 마곡동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운동장에서 열린 '2010년 적십자 재난구호훈련'에서 자원봉사단으로 이뤄진 구호물자팀이 이재민들에게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랑인 시설을 원장 거처로

광주희망원, 환자 폭행사건도 '쉬쉬' ... 市 관리감독 소홀

광주지역 부랑인 생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의 수용자가 정신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희망원측은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은 1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랑인 생활시설인 광주희망원과 정신전문병원에서 부랑인 생활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부랑인 생활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도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희망원 생활자

인 한 정신전문병원에서 김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 적출로 왼쪽 눈이 실명됐다. 또 두 팔의 힘줄이 파열되고 피부가 손상되는 증상을 입었으나 광주희망원과 병원은 경찰에 신고는 물론, 관계기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광주희망원 생활자였으나 지난 6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신

의 뜻과 상관없이 정신전문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문 의원은 "피해자 고씨는 안구적출과 힘줄, 피부 손상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라며 "하지만 해당 시설은 이를 은폐하는 등 숨기기에 급급했고,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희망원의 운영상 문제도 지적됐다. 문 의원은 "부랑인 생활시설인 광주희망원 생활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사용돼야 할 '그릇홀'이 오랫동안 원장의 거처로 이용됐다"고 지적한 뒤, "지난 9월~11월 3일 동안 환자 42명이 갑자기 퇴원조치된 것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모텔 화재' 적정진화 논란 ... 소방대원 3명 조사

광산경찰, 진화과정 분석

지난 13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발생한 모텔건물 화재 진화 적정성 논란(광주일보 11월 15일 6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화가 제대로 이뤄

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 현장 지휘 담당자(50) 등 소방관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등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과 '인명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일부 목격자와 유가족들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당시 진화를 관련 매뉴얼에 맞춰 실시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총 40여명을 구조해냈다"며 "경찰에서도 화재진압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조 당시 도로사정상 motel 한 쪽 벽면에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없어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했는데,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이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시간대별 진화과정을 분석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가나 노동자의 눈물

하남공단 일용직 오세이씨 안타까운 투병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근로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민

단체가 치료비 모금에 나섰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3일 광주 하남공단에 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가나 출신 프랭크 오세이(사진·Frank Osei·37)씨가 뇌염으로 쓰러져 광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기독병원 측은 프랭크씨의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염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프랭크씨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약간 반응하는 정도로, 여전히 인공호흡에 의지하고 있다.

광산구의 한 작은방에서 살던 프랭크씨는 지난 2006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2007년부터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하남공단 근처의 일일 대기소에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해왔으며, 한 달

에 60만원 가량을 고박고박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 대사관을 통해 프랭크씨의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병원 측은 현재까지 나온 치료비 2600여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측은 모금운동을 통해 630여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하루 치료비가 30만원에 이르러, 모금액도 턱없이 부족해 동료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문화센터 이천영 소장은 "한국의 산업전선에서 일해온 프랭크씨가 무사히 치료받아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모금계좌는 농협 351-0034-0334-43(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단교회)이나 국민은행 612-24-0213-674(예금주 봉준태) 등이다.

/양수현기자 yang@

나원침 (8172) 김종두



박종규 전 경호실장 아들 숙부 명예훼손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16일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으로 1970년부터 10년간 경남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경남대를 운영한 고(故) 박종규씨의 아들이다.

박씨는 2008년 7월 한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해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이순신대교 진입 공사장 땅 속 3m 깊이에 기름띠

환경단체 업체 고발

여수국가산단의 관문에 건설중인 이순신대교 진입도로 공사장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가 관계기관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6일 "이순신대교 진입로 터파기 공사 중 다량의 기름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와 시공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순신대교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하 매설 관로 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 3m 깊이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 기름띠가 지난달부터 지하 매설 관로 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680m 구간의 양끝 지점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토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하에 매설된 관로의 수명은 최대 50년이지만, 용접 부위는 최대 30년으로 부식이 빠르다는 점에서 기름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기존 매설 관로 용접 부위 등의 노후화로 인해 장기간 기름 유출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하 관로 소유자 12곳을 상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기름띠 발생 지점이 과거에 GS칼텍스의 정비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로 환경 복원이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나 조폭" 400만원어치 공짜술 마셔

〇조직원폭배 입을 과시하며 유홍주점에서 '공짜' 술을 마신 조직원폭배 2명이 경찰에 걸렸다.

〇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조직원폭배 조모(29·광주시 서구 양동)씨와 송모(29·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1월 3일 밤 10시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유모(여·32)씨의 유홍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양주를 마신 뒤, 술값 100여만원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술을 공짜로 마셨다는 것.

〇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씨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자 뒷모습을 벗은 뒤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 주며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